

Ronald W. Langacker's
LANGUAGE AND ITS STRUCTURE:
Some Fundamental Linguistic Concept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Inc., 1968

박 남 식
(서울대학교)

이 글의 주 목적은 필자가 상기 저서를 읽고 느낀 소감 몇가지를 적는데 있다. 소감을 이야기 하기에 앞서 상기 저서(앞으로는 본서라 부르기로 함)의 내용을 먼저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리고 소감을 서술할 때 본서와 유사한 목적으로 쓰여진 다른 서적들과 본서를 대조 혹은 비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대조 혹은 비교에 입각한 관찰은 본서의 상대적인 장 단점을 드러내는 장점이 있으리라 믿는다.

본서가 세상에 나온지는 이미 4, 5년이 지나 갔고 또한 국내외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아온 사실을 고려해 보면 이글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필자는 아직 읽지 못했지만, 본서의 서평이 권위있는 모 언어학지에 실린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의 독자 중에는 본서나 본서의 서평을 아직 읽지 못한 분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감히 이 글을 쓰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면 우선 본서의 내용부터 살펴 보자. 구체적으로(chapter by chapter)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본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입문서적인 성격을 띄고 있음을 지적해 두고 싶다. 저자 자신은 굳이 본서가 입문서이기는 하지만 언어학 자체의 입문서가 아니라 언어 자체에 관한 입문서라고 그의 서문에서(p.v) 강조하고 있지만, 본서의 내용이나 제목을 보아도 그렇고, 이러한 종류의 서적이 지나는 원래의 성격으로 보아도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자기모순(self-contradiction)으로, 혹은 지나친 겸손으로 밖에 볼 수가 없을 듯 하다. 저자의 말대로 본서가 언어(p.v에서 language를 noncount noun 으로 쓴데 유의하기 바람)에 관한 입문서라면, 어떻게 본서가 언어학의 이론을 회피할 수 있다는 말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본서는 세 부분(three parts)으로 되어 있고 각 부분은 세개의 장(three chapters)을 갖고있다. 각 부분과 장의 내용을 순서대로 소개해 보겠다.

제 1 부 (Part One)는 그 제목(Basic Concepts) 이 말해 주듯이, 언어 혹은 언어학의 연구에서 문제가 되는 기초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본서의 뒷 부분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warming-up 혹은 서두라고 볼 수 있다.

제 1 장(Chapter One: By Way of Introduction)은 서두의 서두로 간주할 수 있다. 언어연구의 동기, 언어학의 정의 및 분야, 언어 연구의 역사등을 지극히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제 1 장은 제 2 장과 제 3 장으로 올라 가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제 2 장 (An Initial Look At Language)에서는 인간(특히 유아)의 언어 습득 능력, 언어 기술을 위한 체계, 언어와 사고의 상호 관계,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음성과 의미의 상대적인 기능등을 다루었다. 여기서 취급된 문제들은 대부분 오늘날 언어학("contemporary linguistics")——특히 공시언어학(synchronic linguistics)——의 핵심적인 연구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 들이다. (공시언어학과 통시언어학(diachronic linguistics)의 분계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자의 이 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제 3 장(Language in Society)은 한 언어가 몇개의 방언 혹은 "상이한" 언어로 "발전"하는 과정, 언어의 표준화 경향, 문자의 사용을 설명했다. 언어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여러가지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변천 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앞의 제 2 장이 공시언어학의 중심 과제를 취급했다고 하면, 이 제 3 장은 통시언어학의 주요한 관심 영역을 다루었다고 보아도 좋을 듯 하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제 2 부도 3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말하자면 제 1 부 제 2 장의 그것 가운데서 언어 습득 능력과 언어의 기원을 제외한 부분을 일층 더 자세하게 그리고 고차적으로 소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서의 기타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 부분의 내용은 그 이론적 근거를 소위 변환생성언어이론(transformational-generative linguistic theory)에 두고 있음을 지적해 두고 싶다.

제 2 부의 처음에 나오는 제 4 장(The Organization of Grammar)은 transformational-generative theory에 입각하여 언어를 기술할 때 그 기술의 model인 문법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어떠한 구조를 취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변환생성문법의 3대 부분이라할수 있는 Syntax, Phonology, Semantics 의 부분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3자간의 상호 관계는 물론 왜 그러한 관계가 정당화되는지까지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제1부의 제1장이 그러했듯이 제 4장 역시 제2부의 서두로서 나머지 5장과 6장에서의 scope of discussion을 소개하고 한정하는 서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 5 장(Syntactic Systems)은 syntax 부분을 소위 conceptual structure(개념구조 혹은 의미구조)에서 surface structure(표층구조)로 유도하는 역할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맡는 syntax의 대표적인 규칙들을 제시하고 이 규칙들이 문장의 기술에 어떻게 사용되

는지를 보여 주었다.

제 6 장(Phonological Systems)에서는 조음음성학(articulatory phonetics), 음성의 변별적 차이(distinctive differences), 변성이론의 phonological rules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 2 부의 내용 요약을 끝내기 전에 한가지 지적해 둘 일은 제4장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제기되었던 변환생성문법의 3대 부분 중에서 conceptual structure에 관해서만 별도의 chapter가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제 3 부(Linguistic Relationship)는 제 1 부의 제 3 장에서 소개된 사항들과 제 2 장가운데서 언어 습득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더 깊이 그리고 더욱 확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 3 부의 첫째 장인 제 7 장(Language Change)은 제3장의 확대판이라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언어가 몇개의 별개 언어 혹은 방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외부로 부터의 차용(borrowing), 교통 및 통신의 장애로 말미암은 접촉의 차단, 언어 습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세대 간의 차이등 여러가지 원인을 중심으로 논술하고 있다.

다음 제 8 장(Genetic Relationships)은 제 7 장을 역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위 하나의 parent language (Eg. Proto Indo-European)가 여러 가지 daughter languages(E.g. Germanic, Italic, Greek, etc.)로 변천하는 과정을 원인에서 결과의 방향을 취한 것이 제7장이라면, 제8장은 daughter language를 보고 parent language를 찾는, 즉 결과에서 원인을 참작하여 조어(proto-language)에 이르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comparative method, internal reconstruction등 소위 조어의 재구성(reconstruction)에 필요한 방법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세계 여러 언어의 어족별 분류도 아울러 곁들였다.

본서의 마지막 장인 제9장(The Universality of Language Design)에서는 language acquisition과 linguistic universal에 관하여 논술하고 있다. 언어 습득의 능력이 인간에 한하고, 모든 인간에 공통되고(species-specific and species-uniform), 그러므로 모든 인간 언어는 공통된 점(linguistic universal)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공통점이 모든 언어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는 변환생성이론의 소위 합리적인 언어관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언어 습득이 훈련과 경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empiricist들의 입장이 변환생성이론의 합리관 보다 합당치 못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의 소개는 끝내고 다음으로는 필자의 독후 소감을 이야기 할 차례이다.

필자에게 본서의 여러가지 장점 중에 으뜸가는 것 하나를 고르라면 본서의 내용이 일반 지식인이나 언어학 초보자들이 그리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읽어 낼 수 있도록 평이하게 쓰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다. 그것이 무슨 대견한 일이겠느냐는 반응도 있을지 모르지만, 본서가 입문서라는 점과 과거의 언어학 입문서가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갈

것으로 생각된다.

본서 이전에 출간된 언어학 입문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먼저 이러한 성격의 저서로 각광을 받았던 Charles F. Hockett의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Henry A. Gleason의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Archibald A. Hill의 *Introduction to Linguistic Structure* 등은 한결같이 장황하고 지루함은 물론 취급된 내용의 정도나 취급 방법등에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Hockett의 상기 저서의 경우 특히 그렇다고 느껴지지만 기타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전문적인 내용과 용어로 가득 차 있어서 저자들이 입문서의 취지와 목적을 완전히 망각하거나 벗어난 인상마저 갖게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입문서들은 지나친 popularizer로서 너무 저속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Robert A. Hall의 *Linguistics and Your Language*나 Simeon Potter의 *Modern Linguistics*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두가지 종류의 과거 입문서가 범한 “오류”의 양 극단을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본서를 무엇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여러 언어학과 중의 하나 만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 없는 취급이 가능했다고 볼수도 있겠으나, 다른 입문서보다 조그만 지면을 가지고도 언어의 본질이나 언어 연구의 핵심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다룰 수 있었다는 점 또한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본서를 읽을 때 초심자라도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리라는 느낌은 본서의 내용 전개가 단계적(stage by stage)으로 되어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앞의 내용 소개에서도 그러한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으리라 믿지만, 어떠한 중요한 topic을 다룰 때 거기 앞서 착실한 정지 작업을 하여 독자들이 충분히 warming-up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본서의 각 부분(part)이나, 각 장(chapter)간에는 시종 일관하여 유기적인 흐름이 유지되어, 한 부분에서 다른부분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극히 부드럽고 자연스럽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덧붙여, 본서가 특히 변환생성언어의이론의 입문서로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된다. 이미 지적했지만, 본서의 이론적인 배경은 변환생성이론에 두고 있다. 이 언어이론이 고개를 들고 일어난 것은 이미 십년 이상이나 되고 그 입문서도 몇 가지 세상에 나왔지만, 이 분야의 입문서들도 앞에서 지적한 여러 입문서들이 가지는 결함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Emmon Bach의 *An Introduction to Transformational Grammars*는 가뜩이나 난해하다는 변환생성이론을 지극히 “추상적”인 이론의 차원에서 다루어 몇 번 되풀이 하여 읽은 후에야 비로서 이해가 가던 기억이 난다. Paul M. Postal의 *Constituent Structure: A Study of Contemporary Models of Syntactic Description*을 필자가 입문서로 공부한 일이 있는데, 이 책 역시 입문서로서는 너무 지나치게 힘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Postal의 이 저서를 입문서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약간 의문이지만, 이 책은 변환생성이론의 소개 자체 보다 다른

이론을 “혹평”하는데만 급급한 인상을 주어서 뒷맛이 개운치 않았음을 부기한다. 그런가 하면 Andreas Koutsoudas의 *Writing Transformational Grammars: an introduction*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입문서로서는 너무 장황한데다가 rule manipulation 자체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transformational grammar는 주어진 자료(data)를 generate 할 수 있는 rule 만을 어떻게 하든 만들기만 하면 되는 듯한 착각을 갖게 할 정도이다.

변환생성이론을 초보자에게 소개 할 의도로 몇개의 논문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필자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Langacker 교수가 기타 입문서들이 “한결같이” 갖는 결점을 범하지 않고 그의 저서에서 입문서의 성격을 충분히 살린 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본서와 기타 입문서 간에 있는 연대적인 차이나 언어 이론 발전 단계의 차이를 감안하면 기타 입문서에 대한 필자의 비평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나, 입문서로서 본서가 지니는 그 탁월한 우수성을 확신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그러한 평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어떤 이는 본서는 비교적 짧은 발달 역사를 가진 언어 이론을 소개하기 때문에 다른 오랜 역사를 가진 이론(구조주의 언어관)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Hockett, Gleason 등의 상기 저서와의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본다. 각 입문서의 출판 연도와 각기 대표하는 언어 이론이 대두한 연대 사이의 기간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짧은 역사의 이론(glossematics)을 소개하는 Louis Hjelmslev의 *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 (English translation by Francis J. Whitfield) 같은 저서도 앞서 여러 입문서가 받은 혹평을 받을 소지가 많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전 분야의 포괄적인 소개(general survey)를 하면서도 소개된 내용이나 그 전개 방법에 있어서 본서와 비길 만큼 입문서의 취지에 충실한 저서로는 tagmemics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Benjamin Elson과 Velma B. Pickett의 *An Introduction to Morphology and Syntax*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유사한 취지로 쓰여진 다른 서적들과 비교하여 본서의 장점을 느낀대로 적어 보았다. 위에서 지적한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때 본서를 “a concise, readable, and up-to-date introduction”으로 쓰겠다는(P.V) 저자의 의도 중 2/3는 성공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1/3에 해당하는 “up-to-date”하게 쓰겠다는 저자의 의도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도 제기할 수 있다. 집필 당시로 보아서는 비교적 up-to-date였을지 모르나, 오늘날 변환생성이론의 급속한 변화 발전 속도나 이론 자체가 어느 의미에서는 유동상태(in a state of flux)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분야의 논문이나 저서는 출판이 되기 전에 혹은 출판이 되기가 무섭게 out-of-date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저자가 up-to-date라는 어휘를 쓰는데 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위와 같은 장점들도 있지만 몇 가지 거슬리는 점도 있어서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러한 점으로 관심을 돌리기로 한다.

먼저 본서의 제목과 내용 간에 나타나는 격차(discrepancy)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목으로 보아서는 본서가 변환생성이론에 한정된 입문서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제목이 풍기는 인상은 어떤 특정 이론에 국한하지 않고 있는 “대범한” 것이라고 느껴진다.

혹자는 부제 Some Fundamental Linguistic Concepts의 Some이 있으므로 이러한 비평은 마땅치 못하다고 할지 모르나, 모호한 의미의 Some을 가지고 반론을 펴는 것은 한 날 lame excuse로 밖에 볼 수 없다.

부제에 변환생성이론을 위주로 한다고 한정을 했으면 문제는 달라진다. 변환생성이론 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언어 연구의 이론이 있는 것이 사실인 이상, 임의로 변환생성이론이 오늘날 모든 언어 이론을 대표하는 양 소개하는 것은 반지식인적(anti-intellectual)인 처사 혹은 심한 편견의 결과라고 보아 무방하다.

혹자는 변환생성이론 만이 옳은 이론이고 기타 모든 언어 이론은 사이비로 취급하여 본서의 내용이 그 제목에 충실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이론의 배경 없이 변환생성이론의 시발은 생각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점, 다른 언어 이론들의 학문 발전에의 공헌등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현재로서는 변환생성이론이 가장 우수해 보이는 언어 이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더라도 앞으로의 연구가 그러한 의견에 변화를 가져와 다른 이론과 그 위치가 바뀌어 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또한 망각해서는 안된다.

다른 학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학계에서도, 최근의 역사만을 보더라도, 어떤 시점에서는 한 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탁월해 보이다가 후세의 연구 결과 그 이론의 상대적인 위치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 의식적이건 혹은 무의식적이건 간에, 저자가 변환생성이론만이 오늘날 참된 언어 이론인 것 같은 인상을 준 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아래 인용된 서문 첫 paragraph를 참조하라.)

또한 서문과 전체 내용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본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비슷한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저자 서문의 첫 paragraph 전부를 인용한 것이다.

“Language and Its Structure is intended as a concise, readable and up-to-date introduction to the nature and structure of language as viewed by modern linguistics. It is an introduction to language, but not to the discipline of linguistics. Consequently, it does not attempt to examine and contrast the views of competing linguistic schools or to introduce their arsenals of technical vocabulary and notations, but rather to present as clearly and simply as possible the fundamental insights about language to which every well-educated person should be exposed.”

여기서도 필자가 느낀 것은 서문에서의 약속과 본문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서

문에서는 모든 지식인이 알아야 할 언어에 관한 insight 를 소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본문에 가서는 극히 일부(genetic relationships 에 관한 부분)만을 제외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환생성이론 만으로 일관하여 마치 언어에 관한 모든 insight 가 그 한 이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변환생성이론이 구조주의이론의 반동으로 생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이론이 전통 문법의 언어 본질에 대한 insight 와 구조주의이론의 rigorous method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을 밝혔더라면 위와 같은 격차도 없어질 뿐더러 본서는 훨씬 격조 높은 언어(학) 입문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에 인용한 부분에서 저자는 굳이 언어학 입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제2부의 구성에 있어서 언어 기술 체계의 3대 부분 중 semantic systems에 관한 별도의 chapter만이 빠진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저자가 서문과 본문에서 지적한 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에 대한 미완성의 chapter 라도 마련했더라면 독자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저자가 따른 이론은 변환생성이론 중에서도 종래 Noam Chomsky 교수의 소위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에 제시된 모델과는 달리 semantic systems가 언어 기술에 있어서 중추적인 부분이라는 분파의 그것에 입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의미 체계에 관한 더욱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음이 지극히 섭섭하게 느껴진다.

참 고 문 헌

- Bach, Emmon. *An Introduction to Transformational Grammar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 Chomsky, Noam.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 and Co., 1957
- _____.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65
- Elson, Benjamin and Velma Pickett. *An Introduction to Morphology and Syntax*. Santa Ana, California: SIL, 1965
- Gleason, Henry A.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revised edi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1
- Hall, Robert Anderson, Jr. *Linguistics and Your Language*.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60
- Hill, Archibald A. *Introduction to Linguistic Structure: From Sound to Sentence in Description*. The Hague: Mouton and Co., 1964
- Koutsoudas, Andreas. *Writing Transformational Grammars: An Introduction*.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1966

Postal, Paul M. *Constituent Structure: A Study of Contemporary Models of Syntactic Description*.

The Hague: Mouton and Co., 1964

Potter, Simeon. *Modern Linguistics*. London: André Deutsch, 1957